



6일(현지시간) 개막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설치된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축지법과 비행술'(The Ways of Folding Space &amp; Flying).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 '세계의 미래' 여러대 TV로 동시에 보듯

## 큐레이터 김선정씨의 베니스 비엔날레 참관기

'모든 세계의 미래(All the World's Future)'를 올해 베니스비엔날레의 주제로 정한 총감독 오쿠이 엔위저의 본전시에는 세계 각국 작가들의 작업이 미로처럼 만들어진 공간에 놓여 있다. 주제에 따라 내러티브를 만들고 이를 공간 속에서 구현하는 이전 전시방식과는 달리 각국에서 온 여러 작업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마치 뉴스룸 안의 여러대의 텔레비전을 통해 다른 지역의 상황들이 동시에 보여지는 듯하다. 엔위저 감독은 2008년 광주비엔날레에서도 지난 1년 동안의 좋은 전시들을 선별해 가져오는 '연례보고'라는 전시를 기획한 바 있다. 그에게는 전시 내러티브와 동선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전시방식에서도 그는 주제 자체나 예술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작업의 컨테스트를 다각적으로 보여주려 한다. 각 나라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상황의 차이를 문서나 리서치, 자료들을 통해 조명함으로써 작업의 컨테스트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는 식이다. 예전에는 본전시에 한국작가가 한두 명 초청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본전시에는 세 명의 작가들 - 김아영·남화연·임흥순 - 이 참가하였고, 그 중 임흥순은 '은사자상'을 받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임흥순과 다른 한

### 내러티브에 따른 전시 탈피

### 각국의 출품작 '혼재' 전시

### '은사자상' 수상 임흥순 작품

### 찾기 어려워 '서구 중심' 실감

### 한국관에 설치한 영상 작업

### 소리 없애 이미지 몰입 도와

국작가들의 작업을 아르세날레(본전시가 열리는 지역) 전시관에서 찾기는 쉽지 않았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엔위저 감독은 서구 중심의 미술보다는 각국의 다양한 작업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아르세날레의 마지막에 있는 바셀리츠의 작업이나 이탈리아관의 한스 하케의 작업을 보면서 아직도 서구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한계 또한 느꼈다.

이번 비엔날레의 또 다른 특징은 그동안 국가관이 없어 베니스 시내에 공간을 빌려 참여하던 여러 나라의 국가관이 아르세날레에 신설됐다는 점이다.

아르세날레에 공간을 확보해왔던 중국은 물론 20여 개 나라들이 추가로 공간을 마련하게 됐고, 아랍에미리트연합이나 싱가포르 등은 향후 10년간 사용하기로 계약했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앞에 선 문경원 작가, 이숙경 커미셔너, 전준호 작가(왼쪽부터).

홍콩관은 M+의 학예실장인 한국인 큐레이터 정도련이 맡아 창킨과 작가를 선보였다. 텍스트와 비디오 영상을 사용한 전시 공간은 2년 전과는 차별화되는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였다.

자로디니(국가관이 모여 있는 공원 지역) 공원에 1995년 마련된 한국관은 국가관들 중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관은 나무를 자르지 않고 건물을 짓다 보니 쉽지 않은 전시 공간으로, 건축 전이든 미술전이든 해마다 어려움을 토로하게 된다. 그럼에도 문경원, 전준호 작가는 곡면의 유리벽에 실험실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영상을 설치해 공간적 제약을 적극적으로 작업에 끌어들여 사용했다.

한국관 안으로 들어가면 영상이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시간과 공간을 연결시

킨다. 특히 베니스라는 공간적 특성과 역사적 사실을 작업 내용으로 끌어들인다. 베니스의 상인, 동서양이 해상을 통해 만나는 지점이었다는 역사적 사실뿐 아니라 미술사적으로는 베니시안 블루의 특성 등을 반영한 작업이다. '축지법과 비행술'이라는 도교적 사상과 동양 미술, 뇌과학, 종교 등의 여러 학문이 만나는 지점을 작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번 작업은 2012년 작품 'News from Nowhere'와 연결되면서도 또 다른 지점이 있다. 2012년 작업에서 두 작가는 다른 작가들과의 협업과 작업을 연결시키는 큐레이터적 접근을 시도했다면 이번에는 비디오 작업에서 소리를 없앰으로써 이미지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고 이미지의 여러 코드로 작업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베니스 비엔날레 외에도 도시 전체에서 기획전들을 만날 수 있다. 한국의 단색화 전시, 피노 컬렉션을 베트남 출신의 단보가 기획한 'Slip of the Tongue', 한국작가 이매리가 참여한 산수화전, 이이남이 참여한 'Person Structures' 등의 그룹전과 개인전이 도시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서 좋은 전시들이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광주나 부산 비엔날레도 앞으로 도시 전체의 축제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예술감독